

BN.1 변이 검출률 35.7%, BA.5 첫 추월

확진자·사망자 수는 전주대비 감소...위중증 환자 증가 주간 위험도 11주째 '중간'...전파력 12주 만에 1.0 미만

코로나19 BN.1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검출률이 기존 우세종이었던 BA.5 검출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N.1의 경우, 전체 감염률은 32.4%, 국내감염은 35.7%, 해외 유입은 19.3%로 나타났다.

반면 BA.5의 검출률은 34.4%, 국내 감염에서는 32.7%, 해외 유입에서는 40.9%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부터 국내 유행을 주도했던 BA.5보다 국내 검출률이 더 높은 변이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전권 방대본 진단분석단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국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국내에서는 BA.5가 감소하고, BN.1이 점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단 유 단장은 "BN.1이 확진자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중증도 증가 관련 보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간 확진자 수는 전주대비 9.6% 감소한 41만4673명, 일평균 확진자 수는 5만9239명이다.

전파력을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0.95로, 12주 만에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수치는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9.03%로 직전 주 17.90%보다 증가했다. 지난 1일 기준 누적 확진자

2780만1927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4.05%인 113만1185명이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7명으로 전주대비 2.9% 감소했으며 주간 일평균 재원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2.9% 증가한 597명이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39.0%로 9주 연속 30%를 유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평균 35.9%로 지난 주보다 0.5% 포인트 감소했다.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가 중간 단계로 평가된 건 지난해 10월 4주 이후 11주째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확진자 발생이 감소했으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규모가 유지 중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 신규변이 발생 상황 등 전체적인 방역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 단장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조건으로 발표한 네가지 지표 충족 여부에 대해 "확진자의 발생과 의료대응역량 두 가지 지표는 저희가 설정한 참고치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참고치에 도달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전체적인 방역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신규 변이의 발생 상황이나 해외로부터의 여러 가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담양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위한 대책회의 개최

담양경찰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나주경찰, 노인 성폭력 예방 위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소 운영

나주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2달 간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소를 집중 운영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여수경찰,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에 나서

여수경찰서는, 행복하고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여수경찰서 화합마루에서 각 과·계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총 35명이 참석하여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강진소방, 강진군 공동주택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강진소방서는 지난 9일 겨울철 특수시책 일환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및 입주인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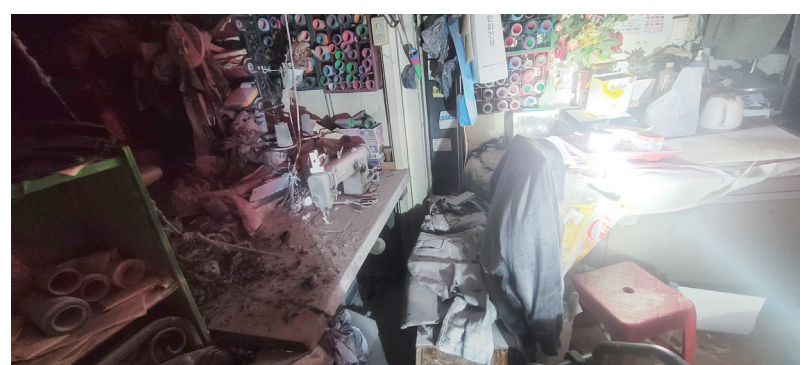
강진=김영일기자



광양소방, 광양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안전간담회 개최

광양소방서는 화재예방 및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조선평화, 광양테크 등 광양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컨설팅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양=김현근기자



광주 동부소방, 전통시장 내 '보이는 소화기'로 초기 화재진압

광주 동부소방서는 대인시장 내 의류수선점에서 전기다리미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주변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로 자체적으로 진화하여 큰 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12시간 檢조사 이재명, '대장동 수사' 중앙지검 소환도 목전

성남지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구속영장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대장동 사건 관련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날 약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여억원의 후원금을 받고 부지 용도변경과 같은 대가를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공모자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후원금 액수가 크고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인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충분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 전망이 많다.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대장동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도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수익 일부가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현재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원장, 정 전 실장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기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용,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 이 대표를 81회 언급하며 이 대표를 향한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전 실장 혐의 중에는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선거·노후자금(이라고 들었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20대 대

선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건은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기업과 개발업자에게 대가성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수사가 무리인 만큼 조만간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서울중앙지검이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달아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된다면 검찰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최이슬기자



'포근한 날씨에 관광객 북적이는 제주 해변'

맑은 날씨를 보이는 10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겨울바다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낮 최고기온은 15.3도로 비교적 포근했다.

맑은 날씨를 보이는 10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겨울바다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시 낮 최고기온은 15.3도로 비교적 포근했다.

광주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확인중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냉장고 부품 제조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어 숨졌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냉장고 부품 제조공장에

서 30대 외국인 노동자 A씨가 함께 일하던 지게차 운전수 B씨의 지게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 A씨는 현장 주변 사출기에서 나온

금형을 옮기다 지게차에 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노동당국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임형택기자

숙박업소 난간에 매달려 연인 불법촬영 하던 20대 현행범 체포

숙박업소 난간에 매달려 옆 호실에 묵고 있던 연인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1일 숙박업소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주거침입,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소지)로 A(25)씨를 일전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4시에 광주 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옆 호실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남·녀 투숙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투숙한 2층 한 호실의 창문을 넘어 건물 외벽을 통해 옆 호실 창문 난간에 매달린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 촬영 장면을 들긴 뒤 자신이 묵고 있던 호실로 달아났으나, A씨가 묵고 있던 호실을 파악한 연인에게 경찰에 신고되며 현행범 체포됐다. 과거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에서는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이 보관돼 있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여분의 휴대폰 2대와 노트북 등을 압수하고 추가 불법 촬영물이 있는 것을 확인,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통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슬비기자